

#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 적극 지원

## 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마련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2019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을 마련, 도내 각급 학교 및 시·군 교육지원청에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중점추진과제는 △학생 보건교육 및 성교육 내실화 △학생 건강증진 실천기반 확립 △학생 건강검진 및 보건실 운영 등 3개 분야에서 11개 사업이다.

우선 학교교육계획에 보건교육계획을 반영하고,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은 17차시 이상 정규교육 과정을 운영해 체계적·지속적인 보건교육이 될 수 있도록 권장했다. 또한 내실있는 학교 성교육을 위해 학년별 연간 15차시 이상 성교육 의무 실시, 각 학교별로 성교육 담당교사 지정, 학교·유관 전문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 운영 등을 안내했다. 학생 건강증진 실천기반 확립을 위

한 사업들도 추진된다.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강화 △저체중 및 비만 예방·관리 활성화 △시력보호 및 구강·아토피 질환 예방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학생 정신건강 관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학생 건강검진 및 보건실 운영에 있어서도 보다 내실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건강검진 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장은 학생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해 학생건강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특히 소아당뇨 등 건강요주의자 명

단을 확보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되 소아당뇨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든 학교에 보건실을 설치하고, 보건실이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증진센터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은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각 학교에서는 기본방향을 토대로 자체 계획 수립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가 지역과의 소통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는 캠퍼스 텃밭을 올해도 시민과 구성원 등에 분양한다.

## 도교육청, 교육복지 추진

### 학교·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위한 교육복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12일 오후 6층 회의실에서 교육지원청 교육복지 업무담당자 30명을 대상으로 2019년 교육복지 추진과 관련해 협의했다.

계층 간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가정기능이 약화되면서 교육에서의 다양한 격차문제에 대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가정 배경과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의미있는 교육적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9 교육복지 사업대상은 사회·경제적 취약가정의 학생이 밀집된 학교이며, 지원 대상은 법정 저소득가정 학생이거나 담임 추천을 통해 교육복지 지원이 필요한 우선지원학생, 가정의 복합적 취약성으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례관리학생 등을 포함한 전체 학생이다.

기본 방향은 ▲학생맞춤형 지원 강화 ▲학교 특성을 고려한 사업 운영 ▲교육과정 연계 ▲학교-지역 공동체 환경 조성 등이다.

도내 교육복지 학교는 340교(중점학교 125교, 시·농어촌 연계학교 215교)이고 농어촌 연계학교는 141교(지정형 10교, 신청형 131교)이다. 교육복지 집중지원학생수는 1만7,214명이다.

교육복지조정자 9명, 교육복지사 125명(공립 106명, 사립 19명) 등 전문인력도 배치했다.

이 밖에도 ▲교육복지사 순회 ▲교육복지연구회 ▲현장지원 방문 및 컨설팅 ▲교육복지 지원단 운영 ▲위기 가정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청-지자체 협의회 등에 대해 논의의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부안군을 시작으로 7개 군 50개 기업 및 기관과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을 체결했다.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양성에 최선을"

### 전북광역새일센터, 7개군 50개 여성친화일촌기업·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이윤애)는 부안군을 시작으로 7개 군(부안, 임실, 순창, 무주, 장수, 고창, 진안) 50개 기업 및 기관과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식(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주)참프레, 부안군청, (주)신한F&B, 사조산업(주)순창공장을 시작으로 7개군 50개 기업대표 및 인사담당자가 참석했다.

협약식에 참여한 기업은 여성인력을 활용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균형을 위한 제도·문화적 환경을 구축하며, 여성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여성친화 일터 조성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며 협약을 교환했다. 또한 정부일자리지원사업 설명회와 노무관리방안 컨설팅을 통해 한 석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천하는 등 기업의 고용난 해소와 경영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향후 센터를 통해 배출되는 여성인력 우선 연계를 물론 새일여성인턴, 기업환

경개선, 찾아가는 기업특강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윤애 센터장은 "협약에 참여한 업체들이 더욱 여성 친화적인 조직 문화와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이라 믿는다"며 "전북광역새일센터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취업지원팀(063-254-36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내손으로 수확하는 텃밭 가꾸기 신청하세요"

### 전북대 '캠퍼스 텃밭' 분양 18일까지 농생대로 신청 접수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지역과의 소통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는 캠퍼스 텃밭을 올해도 시민과 구성원 등에 분양한다고 밝혔다. 전북대는 지난해까지 농생대 인근 부지에 100여 구획의 텃밭을 분양해 대학과 지역민이 어우러질 수 있는 시농식과 가을걷이 행사, 수확 품평회, 각종 체험교육 등을 열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호응도를 반영해 올해도 1,430㎡ 면적에 모두 103 구획의 캠퍼스 텃밭을 마련, 지역민과 구성원들에게 분양하기로 했다. 분양되는 텃밭

규모는 1구역 당 약 13㎡씩이며, 사용료는 3만8천 원이다. 분양은 오는 18일까지며, 신청서를 전북대 홈페이지(www.jbnu.ac.kr) 교내공지에서 내려 받아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22일 오전 11시 전북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분양이 완료되면 4월 4일 오후 2시 최종 선정자 및 텃밭 위치 안내가 이뤄지고, 4월 27일 캠퍼스 텃밭에서 오리엔테이션 및 시농식 행사를 갖고 1년 동안 텃밭 가꾸기를 시작한다. 전북대는 시농식 당일 모종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개인포말과 텃밭 가꾸기 가이드 자료, 기초 농사법 교육, 현장기술지도 등을 지원한다. /장은성 기자

## "훌륭한 글로벌 리더가 되어 많은 사람 돕길"

### 전주대, 국제학생 장학금 전달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12일 2019학년도 1학기 국제학생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교내 성적 우수 장학금과 국제학생회(ISF), 서울신반포교회, 서편담장학재단 등의 외부 후원을 통해 모금된 장학금을 총 21명의 국제학생에게 수여했다. 전체 수석을 차지한 바담한드 학생(몽골/전주대 경영학과 2학년)은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매일 연습, 복습하고 모르는 것은 한국 친구들에게 물어봤다"라며, "이런 노력의 결과로 장학금까지 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대 국제교류원장 류인평 교수는 "다양한 기관의 관심과 사랑이 국제학생이 한국에서 꿈을 이루는데 큰



힘이 될 것 같다"며, "장차 훌륭한 글로벌 리더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주대는 국제학생이 유학생 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내외 장학금 제도 운영뿐만 아니라 '국제학생 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국제학생을 위해 전공 학습 멘토링, 방과 후 교육, 호스트 패밀리, 무료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